

## 인도 — 오리사 주의 전기사업 민영화 사례

### 1. 시장 기능에 대한 공부

매일 아침 동부 인도 오리사 주의 사원이 점재하고 있는 주도 부바네스와르의 한 장식이 없는 방에서 미첼 로젠웨이크씨는 시장 기능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하여 세 사람의 관리에게 강의를 한다. 컨설팅 회사인 내셔널 이코노믹 리서치 어소시에이트의 워싱턴 사무소 소속 미국인 한 사람이 오리사 주가 이문이 남는 10억달러어치의 사업으로서의 전기의 생산과 판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오리사 주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국인은 오리사의 전기사업의 통제자로서 새로 임명된 그의 학생들에게 요금, 면허 그리고 사업의 다른 부문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있다. 로젠웨이크씨는 "전기는 파파야와 같이 시장에 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다"라고 설명한다.

인도는 전기 부문의 자율화를 단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로젠웨이크씨의 생도들은 있을 법하지 않은 지도자들인 것이다. 마하라슈트라와 카르나타카와 같은 큰 주들은 민간 전기 생산자와 끝없는 논쟁, 소송 사건 그리고 공공연한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 두번째로 가난한 오리사 주는 겨울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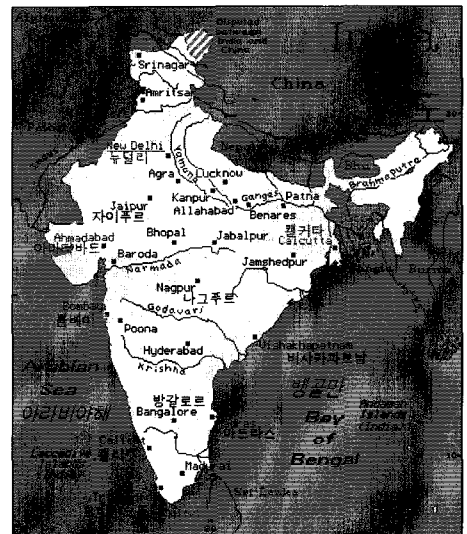
한 값어치가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사 주는 독립 규제기관을 창설하고 발전, 송전 및 배전의 기능을 분리하는 연속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인도 전력성의 P. 아브라함 장관이 오리사를 인도 전국의 주에 대한 표본으로 삼기를 권장할 정도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 2. 인도의 1억kW의 250개 프로젝트

인도의 전력부문이 우울한 상태임에 비추어 오리사 주의 노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력 부족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도는 약 1억kW의 발전 설비를 추가시키기 위하여 약 25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만이 운전개시 허가를 획득하였다. 현지 기업과 미국 미시간주의 CMS 에너지 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23만 5천kW의 조그만 한 발전소가 이것이다. 엔론, AES 그리고 코젠트릭스 에너지 등과 같은 사업자들은 인도의 정치적인 서로 상반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인도 사정에 정통한 미국 워싱턴의 법률 회사 리드 & 프리스트의 책임자인 마크 리디씨는 "인도는 전력 부문에서 어떻게 사업을 안할 것인가의 사례로서 사용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리사 주는 올바른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 4월에 주 전기국을 해체하였으며 이것을 독립된 규제 위원회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과거에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관료적인 주 전기국에 의존하던 것이 정치적인 압력의 대상으로 덜 노출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력 프로젝트의 허가가 심의되는



**해외 전력사정**

것이다. 이들이 요금을 정하고 면허를 발부하게 되며 경쟁 구매 입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의 진척과 성취된 성능을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3. 민영화가 전략의 핵심**

민영화가 전략의 핵심이다. 발전·송전 및 배전 기능의 오래된 독점 체제가 법인체로 분할되었다. 그 중의 한 회사는 오리사 송전 공사(Gridco)이다. 이 3억 5천만달러 규모의 회사는 전력의 송배전 사업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주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Gridco는 1998년 이후 민간 소유화를 시작하게 된다. Gridco는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두고서 25만kW 석탄 화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AES회사 등과 같은 민간 발전회사들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게 된다. Gridco의 법인 계획 디렉터인 N. B. 미스라씨는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루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의지와 지원이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오리사 주의 지도자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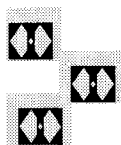
전통적인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야만 한다. 세계은행에 의해서 지정된 자문회사의 로젠웨이크씨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료들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너스 등으로써 뇌물 수수와 나태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산된 모든 전력의 22%가 손실되고 있는 이 주에서 이들은 효율적인 계량과 엄격한 요금 조정 그리고 수급 절차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 정부가 농업 부문—그리고 이 부문은 투표인들의 큰 덩어리이기도 한—에 대하여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조를 하였다. 이제 오리사 주는 대담하게 5년간에 걸쳐 전기요금을 15% 인상함으로써 발전원가 충당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 Gridco의 정밀 점검**

오리사 주의 개혁의 어려움 중에는 아직 분배 문제가 남아있다. 전력의 배분 사업은 구매자가 흥미를 가질 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더군다나 개혁 노력을 시작한 오리사의 수석 장관인 비주 파트나이크씨는 1995년에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으며 새로 들어선 주 정부는 AES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게 되는 제안된 합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 Gridco의 새 경영진은 이 거래에 대하여 정밀하게 속속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다른 주 정부는 오리사의 전기사업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네 개의 주가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세계은행에 접근하고 있다. 다른 주들은 개혁과 민영화의 이점에 대하여 오리사 주에 질의를 하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에서 11억달러의 100만 kW 발전소 프로젝트를 3년간이나 끄적 못하고 중단상태로 두지 않을 수 없었던 코젠트릭스 에너지의 개발 부사장인 로날드 서먼스씨는 "오리사 모델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의 전력 정책은 몇 개의 성공 사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리사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료 : '비즈니스 위크', 1996.9.30)



**인도 — 코젠트릭스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1. 성스러운 팔리마루 사원**

망갈로르 북쪽에 있는 팔리마루 사원에 대하여 감히 어떤 외부의 힘이 침범

하려했던 가장 마지막 시도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이 성스러운 사원의 쪼소를 죽인 것으로서 약 400년전의 일이었다. 힌두 성직자가 침범자를 찾으라

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한 한마리를 던졌는데, 이 성자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호랑이는 숲으로부터 기어와서 성자의 발 앞에서 죽었다.

사원에서 고품압으로 뒤덮인 얼룩진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책임 성직자 하리시 쿠마르씨는 이와 비슷한 운명이 이 사원 근처에 100만kW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전력개발 회사인 코젠트릭스 에너지에게도 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코젠트릭스 프로젝트가 법에 의한 소송과 환경에 대한 항의 등으로 충분히 많은 문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사원의 계시가 그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쿠마르 성직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들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성자의 저주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2. 11억달러의 화력발전소

이미 코젠트릭스 프로젝트는 거의 마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코젠트릭스의 주재국 대표인 론 소머스씨에 의하면 이 11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인도의 새로운 민간 발전 정책의 모델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승인을 희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코젠트릭스 주도의 망갈로르 전력회사는 규제완화 시대의 인도에서 투자에 따르는 복잡성의 상징적인 논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4년간의 협상 끝에 코젠트릭스와 다른 "조기 착공" 전력 프로젝트들은 그들이 인도의 정치인들과 관료와 지역 이기주의의 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데베 고다 수상이 이끄는 인도의 중앙 정부는 코젠트릭스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1996년 9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여섯 개의 조기착공 프로젝트들을 모두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열세개의 정당 사이에서 만들어진 소수파 정당의 제휴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정부가 비교적 약체이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관료와 일반 대중의 반대와 환경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다시 공공연하게 되풀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 3. 인도 정부의 벼랑끝 협상

문제 절충을 위하여 코젠트릭스는 이제 뉴델리의 관료들이 가격과 국가의 재정보증을 놓고 벼랑끝 협상을 열한 시간이나 강행한 끝에 그들의 재무 수익률이 쭈그러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맥킨시 & 컴퍼니 컨설턴트의 보고에 의하면 재무성에게 협상임무가 돌아감으로써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의 독립 발전사업자는 "이제 프로젝트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는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이것을 행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에 굶주리고 있는 인도는 선택자이지 구걸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코젠트릭스의 운명은 경제 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도의 전력 민영화 정책의 신뢰성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엔론이 주도하는 25억달러짜리 발전소 프로젝

트가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에 의해서 지난해에 폐물로 되었다가 후에 다시 협상한 이래 첫번째의 주요한 시험 사례인 것이다. 대략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코젠트릭스의 결과는 이 연합전선 정부가 연간 100억달러의 외국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기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4. 데베 고다 주 수석장관의 인도 수상 취임

코젠트릭스의 프랭크 베너 사장은 "나는 우리가 그 그림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재무성과의 협상과정에서 요지부동으로 꼼짝할 수 없는 막다른 궁지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1996년 9월초에 뉴델리를 급히 방문한 바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큰 그림으로 판단하도록 시도하였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본비 그리고 가장 낮은 전기요금을 제시하였다. 당신들은 지엽적인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안된다. 당신들은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들 주장의 불행한 유사성은 코젠트릭스의 방출수들이 남부 카르나타카의 우림에 해독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 때문에 이 주는 수력발전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름 계절용 기간인 우기의 자연현상이 하느님의 은총에 크게

## 해외전력사정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웃 타밀나두와의 물에 대한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게 되었다. 주의 수도인 방갈로르에서는 정전이 일상적인 일이다. 주 전기국은 1996년 6월에 정전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방갈로르의 TV 시청자들이 그들의 전 수석장관이었던 데베 고다 신임 수상이 인도 수상으로서 선사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5. 데베 고다 수상과 거물급 정치인들의 반대진영 참여

데베 고다씨의 수상 취임은 코젠트릭스의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카르나타카의 수석 장관으로 있을 때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신뢰할 만한 후원자이었던 것이다. 그가 뉴델리로 옮겨 앉은 뒤에 중앙정부는 코젠트릭스에 대한 환경문제까지 포함한 승인을 위하여 1996년 6월과 7월에 밀어붙였다. 데베 고다 수상은 심지어 코젠트릭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인디라 간디의 며느리이며 전 환경청 장관이었던 마네카 간디를 그의 자나타 당당으로부터 축출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데베 고다 수석 장관의 중앙정부에의 진출은 이 프로젝트에는 실질적인 손상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코젠트릭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환경활동가인 레오 사드하씨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데베 고다씨의 국가 수상직 취임에 따르는 지위 향상은 "거물급 정치스타들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해주고 있다"라고 시인하고 있다. 그는 전직 장관이었던 간디씨의 경우와 같은 국가적인 거물급 인사들의 참여를 예로 들고 있다.

### 6. 데베 고다 수상의 속수무책

이 프로젝트는 카르나타카의 농민 지도자인 M. 난준다스와미씨의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는 금년 초에 악명을 떨쳤는데 그의 앞잡이들이 방갈로르 하구에 있는 새로 생긴 켄터키 프라이트 치킨에 침입하여 살살이 뒤졌던 것이다.

그러나 코젠트릭스의 경영진들이 원통해 함에도 불구하고 데베 고다 수상은 그들을 정치적인 진흙탕의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없었던 것이다. 수상은 엔론 프로젝트의 일시적인 중지 사태에 기여한 것과 같은 편들기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8월에 코젠트릭스 프로젝트가 뉴델리 관료들의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데베 고다 수상은 사이드 라인 밖에서 관망할 수 있었을 뿐이다. 망글로르 전력의 한 임원은 그는 "이 거래의 중매자로서의 그의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 7. 엔론 사태의 교훈

코젠트릭스 프로젝트가 테스트 케이스가 되도록 두드져 보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뉴델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에너지 부문을 개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노스 캘로라이나의 민간 회사에게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1992년에 코젠트릭스는 카르나타카의 그 당시 수석장관과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수석장관은 이 회사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빨리 변화하는 카르나타카의 정치 판도에서 두 개의 다른 정당에서 나온 네 사람의 주 지도자들 중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것이다.

주 정부의 승인의 덤불을 뚫고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코젠트릭스는 가격의 부풀림과 뇌물 공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구설수에 휘말렸던 선두주자격인 엔론의 시행착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엔론의 투명성에 대한 기록을 개선하기 위하여 데베 고다씨는 코젠트릭스로 하여금 건설과 기자재 구입 계약을 국제 입찰에 부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결과 코젠트릭스의 당초 제의서에서 파트너였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입찰에서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트너에서 탈퇴하고 말았다. GE는 10%의 옵션을 보유하는 반면 홍콩의 중국전등전력회사가 40%의 지분을 매입하였다.

### 8. 프로젝트 비용의 10% 감축

경쟁 입찰과 세계적인 기기 가격의 하락 추세로 코젠트릭스 프로젝트의 자본 투자비가 10%나 감소되어 395억루피(11억달러)가 됨으로써 인도에서 최근 건설한 화력발전소 중에서 MW당 가장 저렴한 가격의 하나가 되었다. 코젠트릭스는 이어서 주 소유의 카르나타카 전기국과의 계약에서 공급전력의 전

기요금을 낮추는 협상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보도 인도의 고위 관리들에 대하여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들 관리들은 또한 엔론 사건으로부터 배웠으며 코젠트릭스와 협상에서 보다 좋은 거래를 쟁취하려고 계속 시도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코젠트릭스의 베너 사장은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당신이 인도 정부의 관리들이 그들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것은 충분한 것이다. 이제 이것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자" 라고 덧붙여 말한다.

## 9. 한계수익점과 전기요금

이 회사에게 경종을 울린 것은 1996년 8월말에 재무성에서 요구한 것으로서 전기요금을 단지 한계수익점에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 선으로 약간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그 대신 회사의 재무수익률을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베너 사장은 말하고 있다. 그는 인도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이 이 프로젝트를 애당초 가망이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 소급 적용되는 정책의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정부의 마지막 장애물은 재무성이 신용도가 낮은 주의 전력사업체에 대하여 코젠트릭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응보증"을 고려할 때 나타나게 되었다. 인도정부는 국제적인 자금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덟개의 조기착공 전력프로젝트에 대하여 이와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제의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모든 대응보증협상이 사업 개발자에 대한 리스크수준을 상승시키고, 수익률을 낮추게 되었다"라고 다른 조기착공 프로젝트의 한 경영층 인사는 말하고 있다.

## 10. 열효율과 내부 수익률

코젠트릭스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쟁점은 연료 사용 효율의 척도인 "열효율"이라고 부르는 성능 기준이었다. 코젠트릭스가 카르나타카 주와 협의한 열효율은 인도 정부가 정한 최고 한도치보다 낮은 것이었다. 그러나 재무성은 자체적인 재무 분석에 기본을 두어 더욱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코젠트릭스는 그렇게 하여 내부 수익률을 3퍼센트 포인트나 삭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5%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권고한 수익률인 17%~21%를 하회하게 되므로 수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와 같은 낮은 수익률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성의 관리들은 상호간의 양보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코젠트릭스의 수익률을 점차적으로 낮추겠다는 결정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전력성 동료들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조건을 택함으로써 공공 이익을 확보하는 정부의

권한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너무나 강력한 재무성이 시시한 일을 놓고도 마치 이를 잡듯이 살살이 따지고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 고유의 감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력성의 P. 아브라함 장관은 코젠트릭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 "내가 그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내가 그들로부터 납득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 11. 시간과 대응 보증과 리스크

그러나 코젠트릭스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소머씨는 말하고 있다. 공사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되지 않으면 코젠트릭스는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수백만달러의 위약금 부담 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된다.

대부분의 다른 조기착공 프로젝트들도 이와 유사한 어려운 공지에 놓여 있다. 한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개발 사업자가 단지 재무성의 대응 보증 발급을 기다리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인도의 GVK 인더스트리에 의해서 주도되는 안드라푸라데시 주의 발전소는 1996년 8월에 전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대응 보증은 그 한달 후에 서명되었다. GVK의 G. V. 크리스나 레디 회장은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 행동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신중한

**해외전력사정**

계획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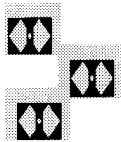
**12. IPP의 전략 변경 요구**

막다른 골목에서 곤경에 처한 코젠트릭스와 기타 조기착공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내키지 않는 마음

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뉴델리의 한 서방 외교관은 "인도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이 뻔뻔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시장 바닥에서와 같이 그들의 얼굴이 푸르죽죽해질 때까지 값을 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맥킨시씨는 재무성으로부터 얻어낸 바에 의하면 "정

부에 있어서 가격 협상권의 이동은 독립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략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료 :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96.9.26)



**인도 — 카르타나카 주의 환경주의자들**

**1. 오랜 세월의 경험**

그의 60 평생의 대부분을 어둠에서 기다린 끝에 약초 채집자인 두가 날리크씨는 결국 건설 예정인 코젠트릭스 화력 발전소로부터 언덕을 넘고 맞바람을 헤치며, 찰마디 가트의 숲이 우거진 그가 사는 마을로 배전선로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날리크씨는 말썽 많은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들여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한다—그리고 어떻게든간에 전기 공급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집으로 전선을 연결하는 인입선 공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밤의 전등과 라디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는 인정한다. "어떤 날 갑자기—흔히 1년 정도 지나서—그들은 전기요금의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도리가 없어 농장을 팔아야 한다. 전기는 처음부터 시작을 앓는 것이 좋다" 라고 그

는 덧붙여 말한다.

**2. 터무니없는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

날리크씨와 마찬가지로 카르타나카 주의 이 다크시나 캐나다의 해안지구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산업 발달의 현대적인 장식물에 대한 예약에 열광적이지 않다. 약초 채집자는 앞으로 부과될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인 높은 가격, 즉 총적층 평원 앞 바다의 얇은 여울과 강으로 내려가는 통로인 고트 또는 언덕 지역 등의 남서부 해안을 따라 줄이어 있는 이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대가를 우려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들—철 가공 플랜트, 인공적으로 축조한 항구, 정유 공장, 비료 공장, 피혁 염색 공장 등—이 이미 이 지역에 들어섰다. 이들은 환경 파괴라는 유감스러운 기

록의 눈금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나프타 크래커로부터 동 제련소 그리고 몇몇의 추가적인 화력발전소 등 모든 것에 대한 몇 십 개의 제의서가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무분별한 산업화에 대한 배경**

경제적으로 뒤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투자사업이 모두 두 팔을 벌이고 환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크시나 카나다는 불모의 오지가 아닌 것이다. 강우량이 풍부한 이 지역은 변창하는 농민들을 지탱해 주고 해변의 물은 인도의 몇 안되는 가장 부유한 어부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아라비아 만과 봄베이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 고장의 근로자들의 송금이 현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이 민간 부문인 교육 산업의 번성은 이 지역을 인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곳으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역

은 부유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이며 무분별한 산업화에 대하여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역 이기주의의 폭넓은 융합은 이 지역의 몹시 위험한 개발에 대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주 차원 또는 국가 차원의 정치가 또는 사업가의 이익 추구에 대하여 일어섰다. 이들 정치가 및 사업가는 모두 한결 같이 이 아름답고 고립된 해안선을 카르나타카의 첫째가는 해양에의 접촉을 위한 창구로서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코젠티릭스의 발전소 프로젝트가 이와 같은 집중적인 십자 포화 속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게 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다크시나 캐나다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정부승인과 건설의 개시에 있어서 다음 차례 순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 4. 장기적인 환경 비용

현지인들은 빠른 산업화의 장기적인 사회 및 환경 비용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편익을 훨씬 능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더욱 더 큰 이유는 모든 부담은 해안의 여기에 부과되는데 반해서 편익은 주로 “계단 위,” 즉 현지인들이 빈정대는 소리로 일컫는 주의 수도인 방갈로르와 그 주변 지역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왜 계단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방갈로르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여야만 하는가?” 라고 산업화의 대형 프로젝트에 반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민 조직의 산하그룹의 하나인 다크시나 캐나다 지역 환경 연맹의 한 운동가인 나테시 올라씨는 묻는다. “왜 우리들이 화력발전소가 이 지역에 가지고 오게 되는 이 모든 악취가 풍기는 더러운 공기, 산성비, 플라이애시 퇴적물, 중금속의 확산, 삼림 파괴, 앞바다의 수온 상승, 공해, 수산 자원의 고갈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등과 같은 모든 것을 감수하여야만 하는가?” 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 5. 남비주의와 지역 발전

코젠티릭스의 인도 지사장인 론 소머스씨는 이것을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 라는 반사적인 NIMBY” 라고 일축한다. 그는 이 발전소와 관련해서 모든 환경문제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산성비를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 유황을 제거하는 탈황설비, 플라이애시를 제거하기 위한 정전기식의 침전장치, 방류구에서의 뜨거운 물이 앞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탑, 중금속이 토양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채워진 애시퍼트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추가해서 코젠티릭스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발전소 자체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거의 2,000명의 건설 인력을 필요로 하며, 약 750명의 영구적인 일자리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유치로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머스씨는 “언젠가는 다크시나 캐나다가 성장해서 보다 큰 카르나타카 주 그리고 전체로서의 인도의 일부가 되어 함께 번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짓는다.

#### 6. 국제 자본주의자와 소비에트의 빅 브러더즈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 주의 현지어인 캐나다 언어에 의한 선도적인 저술가인 94세의 시바라마 카란스씨의 회를 돌구게 한다. 그는 “그것은 오래 전에 뉴델리의 페이비언들이 우리들의 모스크바 고객들에게 우리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던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말한다. “이들 국제 자본주의자들은 우리들의 소비에트 큰형님하고 똑같다. 똑같은 늙은 오만한 자들이며, 똑같은 늙은 ‘크게 생각하라’의 광신자들이다. 나는 그때에도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으며, 아직도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그들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뻐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라드나커 라즈씨는 이 프로젝트의 반대자들을 “내 땅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광신자들”이라고 나무란다. 다크시나 캐나다의 제인 귀족의 한 후손으로서 그의 가족은 한때 거의 2,000에이커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의 대부분은 코젠티릭스 발전소의 부

**해외전력사정**

지가 되며 또 다른 인근에 계획되고 있는 대형 화력발전소도 들어서게 된다.

**7.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자들**

토지구획 개편에 따라 라즈씨 문중의 토지는 그 크기가 줄기는 하였으나 그의 확대된 가족은 코젠티릭스에 매각할 발전소 부지에 아직도 125에이커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에이커 당 60만루피(1만 7천달러)면 적정한 가격이 될 것이다. 60세가 된 라즈씨로 하여금—만일 그가 뜻밖에 생긴 횡재에 손이 닿기만 한다면—그의 가족의 800년이나 오래된 발전소 부지의 끝에 위치하게 된 홍토와 티크재로 지은 저택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칭 전문가들이 내 앞길에 끼여들고 있으며, 이들은 생태학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는 흥분한다.

**8.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우려**

당연하다고 생각되듯이 30년간이나 삼림 전문가로 일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카르나타카 주의 행정 방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사직한 카르나타카의 전 환경 장관인 엘라파 레디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카르나타카 주는 현재의 수상인 H. D. 데베 고다씨가 이끌고 있었으며 코젠티릭스에 대한 그의 반대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그의 집 식당에서의 토론을 다시 떠올리면서 레디씨는 열 다섯개의 결정적인 지역에 대한 정성들여 만든 정교한 도표를 그렸다. 그는 이 열 다섯개의 지역은 발전소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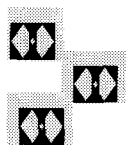
레디씨 주장의 핵심은 강으로 내려가는 통로인 고트, 바다 그리고 우기 및 건기의 급격한 기후의 이종성은 조합을 이루어 다크시나 카나다를 독특한 동식물의 서식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서지기 쉬운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교란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독특한 그리고 귀중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의 돌이킬 수 없는 멸종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강에 연접해 있는 고트에만도 480종의 약용 식물이 있다. 그리고 그 중의 17%는 다른 곳에도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한다.

**9. 계속되는 항의와 시위**

현지 어부들이 현지 정유소로부터의 누유가 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망갈로르 지방장관의 집무실에서 시위를 벌였을 때 당시의 데베 고다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환경 주의자들에게 다크시나 카나다의 생태계가 산업에 얼마나 많이 지탱해서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주 정부는 같은 정유소에서 100에이커에 달하는 누유사건이 새로운 항의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996년 8월에는 망갈로르에서 산업 프로젝트가 더 추가로 승인되기 전에 약속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라는 군중 시위가 있었다. 소머씨는 이와 같은 새로운 장애물 때문에 매우 즐겁지가 못하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계속해서 다시 작성한다면 나도 또한 짐을 꾸려서 베트남이나 파키스탄이나 또는 다른 보다 더 합당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불평하고 있다.

(자료 :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96.9.26」)



**미얀마 — 휘발유 가격 폭등과 정부에 대한 불신**

**1. 후회보다는 안전을 선택**

아웅 민트씨는 후회보다는 안전한 것

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양곤의 사업가인 그는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몇 시간씩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는

그의 도요타 픽업에 휘발유를 만 탱크로 채웠으며 자동차 뒤에 실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용기에도 채웠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정부가 휘발유를 수입할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아웅민트씨는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구입할 수 있는 휘발유가 있을 때에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양을 구입하였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 2. 미쓰이 상사의 공급계약 만료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다. 미얀마 수도의 전 지역에 걸쳐서 수천 명의 자동차 소유주들은 이 나라의 석유 비축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의 와중에서 주유소에서 줄을 서고 있는 것이다. 휘발유 값은 9월 중순의 어느 일주일 동안에 두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 소동이 벌어졌는가. 미얀마와 일본의 무역 회사인 미쓰이와의 1년간의 석유 공급 계약이 1996년 7월에 만료가 되었다. 미얀마 정부는 원유 수출의 마지막 선박을 6월말에 인수하였다. 정부는 미쓰이 상사에 아직도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남아 있음을 시인하였다.

외교관들은 이 빚이 3천만달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쓰이 회사측은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을 거절하였다.

## 3. 재고량의 감소와 시민의 우려

그러나 사태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나쁜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미쓰이 상사는 9월말에 끝나는 공급계약에 의해서 아직 디젤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가 어느 정도의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원유 공급 계약을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재고량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에너지성 계획국의 티엔루원 국장은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당국은 양곤 항이 내주에 원유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장기 공급계약이 성립되기까지 공백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현물 시장에서 석유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4. 지방마다 다른 휘발유 가격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정부의 경제활동은 투명성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은 정확한 정보를 얼마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언론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소문의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당국의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석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9월 24일에 휘발유는 양곤에서 리터당 110차트 (69 미국 센트)의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이 가격은 같은 달 초에는 50차트였다.

이 나라의 다른 지방에서는 더욱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북부에 있는 만달레이에서는 리터당 120차트, 그리고 이라와디 지역에서는 160차트에 거래되었다.

미얀마의 취약한 석유 분배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다른 문제들에 더해서 구매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취약한 도로 및 수로 교통 네트워크는 연료의 이동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특히 북부의 산 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휘발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여기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160차트에 달하고 있다.

## 5. 휘발유 가격 상승의 연쇄 작용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경제에 대하여 몇 가지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키고 있다. 보다 높은 연료비용은 바로 높은 운송비용에 빠르게 전환되며 지방으로부터 양곤이나 기타 도시로 트럭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음식물의 가격을 보다 비싸게 만든다.

이것은 특히 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농산물 수확기에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석유 가격이 빠른 시일 내에 내려가지 않으면 미얀마인들은 추수, 정미 그리고 그들의 일상 음식과 주된 수출 생산물인 쌀의 출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해외전력사정

6. 정부의 성명과 사태 악화의 우려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부 당국은 시장의 위험한 상승 곡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최근의 연설에서 군사정권의 고위 멤버인 틴 우 증장은 "연료 가격은 연료와 디젤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정치 및 경제 상태로부터 우위를 차지하려는 분자들이 가격을 조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관측자들은 이와 같은 언급이 혼란을 더 부추기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몇 년전에 쌀 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였을 때 정부 관리는 이와 비슷한 성명을 발표하

였다. 사람들은 부당이득으로 폭리를 취한 사람으로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쌀을 팔기를 즉각 중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태는 단지 시장에 쌀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7. 자체 원유 생산 1일 약 1,700배럴

에너지성의 티엔 루윈 국장은 지금 정부가 일본과 다른 나라의 몇몇 회사들과 새로운 원유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협상이 몇 주일 이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에 정부는 자체 원유 생산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티엔 루윈 국장이 말한다.

그는 미얀마가 1일 약 1,7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미쓰이상사와 지불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지불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닌 듯하다.

미쓰이 상사는 양곤교외에 건설중인 공업단지 그리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비료 공장과 발전소의 혼성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의 건설은 이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총사업비는 6억달러에서 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 지속되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미쓰이 상사의 양곤 사무소 나가이 미케 소장은 "우리는 이 나라에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미얀마는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몇몇 우호적인 친구들로부터의 조그만 도움이 필요하다. 중요한 외환 수입의 원천의 하나인 쌀의 수출은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60%가 감소하였다. 미얀마는 아직 세계 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차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의 1988년의 반정부 시위에서의 군의 대학살과 1990년의 선거에서 야당인 아웅산 수지여사의 국민 민주 동맹이 승리한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96.10.3」)

